

나의 글 쓰는 이야기

나는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 제법 오랜 시간을 들이는 편이다. 비단 시간뿐만 아니라 한번 글쓰기에 몰두하면 많은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들고 있는 내 모습을 쉬이 발견할 수 있다. 대학 수업에서 써야 하는 글들의 경우 주제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직접 써나가고, 쓴 글을 거듭 고쳐나가는 과정까지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 없이 나로서는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 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 물론 때로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고되나 — 즐긴다.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들을 적절히 풀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읽고 그것들과 나의 생각을 엮어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내 사고 수준은 어느새 이전의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있게 된다. 이전에는 파편들로서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사고의 조각들은 글 쓰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 관계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과정이 계속되는 동안 그 직조된 결과물만큼은 내가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렇기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지반이 된다. 글을 완성하고 난 후 내 사고의 지평이 한 뼘이라도 넓어졌음을 확인할 때에 느껴지는 보람과 만족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글 쓰는 행위에 처음으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학창시절 매일 밤마다 썼던 일기장에서부터였을 것이다. 일기 쓰기에 재미를 들이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으면 흩어져버렸을 조각들을 하나하나 나의 일기장 속으로 끌어 모으는 그러한 은밀한 즐거움이었다. 단순히 끌어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일상에서 느꼈던 것들, 요즘 갖고 있는 고민들, 고민들에 대한 나름의 나의 생각 등을 언어화하여 가독할 수 있는 문장들로 정제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수반되기에 정신과 마음이 차분히 정리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 ● ●
변 예 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생

일기장에 글자들이 점차 빼곡하게 채워지는 만큼 성장기의 나의 자아는 점차 단단해져갈 수 있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다가 그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후, 이러한 글쓰기의 즐거움은 나에게 더욱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다. 당시에 나는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세계관에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방황하고 있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엇이든 다시 잡아보기로 결심하였고 일단 대학에서의 공부에 집중해보기로 하였다. 수강했던 과목들이 사회학과와 철학과와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전공들의 특성상 항상 무언가를 쓰게 되었다. 다행히도 수강했던 과목들에서 나에게 요구했던 글쓰기 과제들은 나에게 적절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에 나는 성심성의껏 글을 썼다. 그리고 이로부터 나는 이전의 방황기를 벗어날 수 있는 빛을 발견하였는데, 적어도 내가 쓴 글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나의 생각 혹은 주장이라고 내어 보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확신에 찬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였기에,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다시 말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도 원해왔기에 글쓰기는 나에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대학 이후 썼던 글들을 통해 나는 잃어버렸던 세계관을 미약하나마 정립할 수 있었고, 점차 안정감 혹은 안착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글쓰기란 어느새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정립해가는 것과 동치라는 중요한 일이 되어 있다.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나는 내 삶의 지평을 점차 — 지금 이 순간조차도 —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좋은 글이라는 생산물을 얻기 위해 다독(多讀)과 다상량(多商量)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경험한 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글쓰기 행위야말로 그것들을 온전히 자신의 지평 안으로 포섭해낼 수 있는 마지막 작업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언제나 긴장을 놓지 않고 꾸준히 다양한 글들을 써나가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다. 논리적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글들의 경우 더욱 엄밀한 잣대를 강요하고, 자연스레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거듭하여 내 삶의 지평을 한 뼘 한 뼘씩 넓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단단한 지반 위에서 자유로이 뛰어 놀기도 하고 조그마하고 아늑한 집 한 채 정도는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도 조심히 바라본다.